

사회복지 학사과정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의 평가를 중심으로

김 연 옥* 오 정 수** 최 해 경***

- I. 문제제기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분석
 - 1. 학사과정의 교육목표에 대한 평가
 - 2. 교과과정 및 교과목의 교육목표에 대한 적합성 평가
 - 3. 교과과정의 구성에 대한 평가
 - 4. 교과과정의 개선에 대한 견해
- IV. 논의 및 제언

I. 문제 제기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과 학사과정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의 현재를 진단해 급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속에서 사회복지교육의 바람직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의 방향을 설정하려는 목적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 연구가 갖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문제의식은 급속하게 변화하여온 한국사회의 현실에 부응해야 하는 교육체계로서 현재의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학 문과 사회복지교육은 해방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를 겪어오면서 학문과 교육체계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그리고 경제사회변동으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이중적 변화의 도전을 경험하였다. 1947년 이화여대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창설되어 우리나라에 사회사업교육이 도입된 이래 1950년대와 60년대에 강남대, 서울대, 중앙대 등에 학과가 개설되어 사회복지학문과 교육이 우리사회의 사회과학 학문과 교육체계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교과과정은 이미 고도의 산업사회의 문제를 경험한 미국에서 그들의 고유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주의적 문화 배경하에 19세기말과 20세기초부터 발전되어온 미국적 양식의 사회사업전문직 교육체계를 한국의 대학교육체계에 이식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였다. 당시의 우리 사회는 수많은 전쟁고아와 절대빈곤이 지배적이었던 사회여서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와 실천현장이 부재한 가운데 사회복지교육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미시적인 문제 보다는 빈곤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가 보다 긴급한 당면과제이었음을 감안하면, 사회복지교육의 초창기에 미국형 사회사업 중심의 학문이 도입되어 우리의 현실에 맞게 토착화되지 못함으로써 교육과 현장이 부조화된 현실의 모순을 낳았음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판단된다. 사회복지교육은 이러한 학문의 토착성 문제 외에도 응용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정체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성 확립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이후 1970년대와 80년대에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일본 등 다수 국가의 학문과 교육이 도입되어 한국의 사회복지교육의 정체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게 하였다. 이들 국가의 학문과 교육은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사회정책 중심의 시각을 우리의 교육체계에 도입하는데 기여를 하였으며, 사회복지 학문과 교육의 영역이 보다 넓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학문과 교육체계의 내적 발전으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제기된 정체성, 전문성, 토착성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형 사회복지교과과정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학문과 교육체계에 영향을 미친 외적 요인은 우리사회가 압축적 산업화과정을 거쳐 후기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로 발전하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내부로부터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는 실천현장의 확대를 가져왔고 사회복지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도전이 되었다. 사회복지교육의 확대로 실천현장에 많은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시대적 요구와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야론 교과목의 출현, 정책수립과 평가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거시적 교과목의 증가, 사회복지 현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초점을 둔 과목의 등장 등은 교과과정상의 새로운 변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합의된 원칙에서 진행되었다기 보다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임기응변적 대응이었으며, 교육자 개인의 관심이나 학문적 배경, 개별 대학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이 없이 표류하여 온 것이 현실이었다. 다수의 논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교육체계의 정립을 지적하였으나, 제도적으로는 사회복지교육의 현실 적실성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고 그 대응도 부족하였다. 이와같이 내외로부터의 변화와 도전에 사회복지교육은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사회복지 교과과정의 내용이 교과목 영역간 균형성, 연계성, 현실 적합성이 부족하게 된 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복지교육의 현실이다.

사회복지 대학교육에서 초래된 이러한 공간적, 시간적 간격과 현실적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교육이 개혁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대학교육은 어느 한 대학이나 일부 연구자만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회복지교육계 전체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교육,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관한 모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교육현실에 대한 치밀한 진단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소비자 이론(consumer theory)과 제도적 이익 이론(institutional interest theory)이 있다¹⁾. 소비자 이론을 적용하면 사회복지수요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사회복지교육의 제도와 내용이 변화한다는 논리가 된다. 제도적 이익이론을 적용하면 사회복지제도를 구성하는 사회복지교육의 공급자의 이해와 태도에 의하여 사회복지교육이 변화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회복지교육 수요자로서 실무자집단(교육수요자는 학생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무자집단이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장래 직업시장의 이미지와 입장을 대변한다고 본다), 공급자로서 교수집단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교육의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연구가 교과과정의 현황분석 혹은 외국의 교과과정에 근거한 규범적 접근을 한 반면 본 연구는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의견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1) Brint, S. and Karabel, J., "Institutional Origins and Transformations: The Case of American Community Colleges", In Water Powell and Paul DiMaggio, The New Institutionalism in Organizational Analysi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337-360

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1.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이 생각하는 학사과정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2. 교과과정 및 개별 교과목의 교육목표 적합성에 대한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의 평가는 어떠한가?
3. 교과목 구성에 대한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의 평가는 어떠한가?
4.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의 교과과정 개선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2. 표본

교수집단은 1995년 2월에 발간된 한국사회사업대학 협의회 회원명부에 수록된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175명과 1995년 3월 이후 새로 임용된 교수 32명을 포함한 총 207명이 조사대상이었다.

교수집단의 표본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66.3%, 여자 33.8%로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 회원명부에 수록된 교수들의 성별분포인 남 71.6%, 여 28.4%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31.3%, 40대가 47.5%, 50대가 15.0%, 60대가 6.2%였으며 평균 연령은 44.0세(SD=7.9)였다. 연령범위는 32세에서 64세까지였다. 교수응답자의 최종학위는 박사 87.5%, 석사 12.5%로 대부분 박사 학위소지자였다. 70년대에 최종학위를 취득한 교수는 3.8%에 불과했고 80년대 27.5%, 90년대가 68.7%였다. 최종학위 전공은 사회복지학이 81.3%, 사회학 11.3%, 행정학 5.0%, 경제학 1.3%, 도시학 1.3%로 나타났다. 최종학위를 국내에서 취득한 응답자는 63.8%였으며, 미국에서 취득한 경우가 28.8%, 독일 3.8%, 일본 2.5%, 기타 1.3%였다.

교수경력(시간강사 경력 포함)은 5년이하가 21.3%, 6-10년이 31.3%, 11-15년 25.0%, 16-20년 11.3%, 20년 이상 10.0%였으며 평균 교수경력(11.3년(SD=6.9)이었다. 교수경력 범위는 1년부터 35년까지였다. 사회복지(사회사업)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 응답자는 56.3%였으며 현재도 실무를 겸하고 있는 응답자는 실무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7.7%였다. 병행 실무활동은 상담, 가족치료, 복지관 관장 겸임, 시설장 겸임, 복지관 상임 전문위원,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사례자문, 프로그램 개발 및 직원교육 등 이었다.

교수응답자의 소속학과 교육과정 개설형태는 학사과정만 있는 경우가 40.0%, 학사+석사 과정이 37.5%, 학사+석사+박사과정인 22.5%로 나타났다. 소속학과가 독립학과제를 채택하고 있는 비율은 68.8%로 가장 높았고, 복수전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10.0%, 독립학과제+복수전공제가 8.8%, 학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7.5%, 독립학과제+복수전공제+최소전공학점제가 3.8%, 복수전공제+최소전공학점제를 채택하고 있는 비율이 1.3%였다.

실무자집단은 사회복지실무자 인명록²⁾에 포함된 3,500명 가운데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는 비율별로 무작위표본추출을 하고 병원 및 기타(상담소, 사회복지협의회, 연구소 등) 유형 종사자는 전원 포함시킨 994명이 연구대상이었다.

실무자집단의 표본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 43.7%, 여자 56.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49.6%, 30대가 39.5%, 40대가 5.5%, 50대 이상이 4.9%였으며 평균 연령은 31.3세(SD=8.1)였다. 연령범위는 21세부터 83세까지이다. 학력수준은 학사가 70.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석사과정 재학 및 석사가 16.9%, 박사과정 재학 및 박사 1.1%, 기타 11.8%였다. 응답자 중 74.3%가 학사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다.

실무경력은 5년이하가 79.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6-10년이 14.1%, 11-15년 3.0%, 16년이상인 3.2%였으며 평균 경력은 4.6년(SD=5.1)이었다. 실무경력 범위는 6개월 미만부터 55년까지이다. 응답자의 직위는 74.9%가 일선실무자였고 18.1%는 중간관리직이었으며 6.5%만이 상위관리직이었다. 근무년수와 직위를 볼 때 본 연구의 표본인 실무자집단은 주로 클라이언트를 직접 접하고 있는 일선실무자들로 이러한 조사대상의 특성이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와 견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응답자의 소속기관 유형은 40.3%가 공공기관이었고 27.2%는 사회복지관이었으며 13.7%가 수용시설이었고 9.7%는 병원이었으며 기타유형이 8.9%였다. 93.5%의 응답자가 자신의 직장 정체성을 사회복지분야로 여기고 있었다. 현 직장에 들어오는데 사회복지 교육이 도움이 된 측면은 83.3%가 응시자격에, 35.2%가 면접시, 29.3%가 시험관련해서였고 6.1%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의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협회, 1996.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996년 9월부터 11월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우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교수집단은 총 207명 중 80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38.6%였다. 실무자집단은 총 994명 중 474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47.7%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주요변수들에 대해 일원적 분석과 교차분석 등으로 이원적 분석이 행해졌다.

Ⅲ. 연구결과 분석

1. 학사과정의 교육목표에 대한 평가

교수응답자들은 사회복지 학사과정의 교육목표를 일반전문가 양성으로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는데 86.3%가 이와 같이 답했다. 교육목표를 사회복지연구자 기초교육이라고 한 교수응답자는 10.0%였으며 고급전문가 양성으로 여기는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87.5%가 소속하고 있는 학과의 학사과정 교육목표를 정책과 임상교육의 균형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임상교육이 8.8%, 정책교육 1.3%, 기타 2.5%였다. 학사과정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교수응답자 중 73.8%가 일반적 교육으로, 25.0%는 일반+전문교육으로 보았고 1.3%만이 전문교육으로 대답하였다. 즉 교수응답자들은 학사과정의 교육목표가 기본적인 자질과 실력을 갖춘 일반사회복지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임상교육의 균형에 근거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비슷한데 미국의 CSWE가 권장하는 교육과정 지침에 의하면 학사과정 교육에서는 사회사업의 바탕이 되는 전문적 기초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³⁾. 또한 미국은 학사 교과과정의 목적이 일반적인 사회사업실천을 준비시키는 데 있다⁴⁾.

교수응답자의 성별, 연령, 전공, 학위취득국, 교수경력, 실무경험 유무에 따른 교육목표와 전문가 교육수준에 대한 평가를 교차분석시켰을 때 최종학위 전공이 사회복지학인 교수가 비전공자 교수보다 전문가 교육수준을 일반적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점

3) 손기상, "학부 사회사업 교육과정", 『변화하는 사회와 사회사업(복지) 교육과정』 제 2회 한미사회사업(복지) 교육자 공동 심포지움 자료집, 1995.

4) 이부덕, "미국사회사업대학교육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한국사회복지 인력수급과 대학교육의 과제』 1995년 한국사회복지(사회사업)대학협의회 연찬회 자료집, 1995.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X^2=7.04$, $p<.05$), 다른 일반적 특성과 교수들의 교육목표와 전문가 교육수준에 대한 평가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공자 교수보다 전공이 사회복지학인 교수가 학사과정의 교육수준을 일반적 교육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은 사회복지학계에서 학사과정을 기초교육에 초점을 둔 일반사회복지사 양성으로, 대학원과정을 전문적인 전공교육에 초점을 둔 임상사회복지사 또는 고급의 사회복지행정인력 양성으로 보는 전반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사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352명의 실무자들이 응답한 교육목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64.8%가 학사과정의 교육목표를 일반전문가 양성으로 여겼고, 18.5%는 사회복지 연구자 기초교육, 14.8%는 고급전문가 양성으로 여겼으며 교양교육으로 간주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했다. 학사과정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58.2%가 일반+전문교육으로, 26.1%는 일반적 교육으로, 11.9%는 전문교육으로 대답하였다. 실무자집단은 다수가 학사과정의 교육목표를 일반전문가 양성으로 여기긴 했어도 교수집단과 달리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기초교육과 전문적인 전공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실무자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근무년수,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 교육목표와 전문가 교육수준에 대한 평가를 교차분석시켰을 때 다른 기관유형들보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학사과정의 교육목표를 고급전문가로 보는 경향이 더 있었고,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교육목표를 연구자기초교육이라고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X^2=22.67$, $p<.05$). 이는 최종학위가 90%이상이 학사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전문성 발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조사결과⁵⁾가 시사하듯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실무자들이 교육목표로 고급전문가를 기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용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유형 실무자보다 학력수준이 낮은 데서 교육목표를 연구자기초교육으로 보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학사과정의 전문가 교육수준을 일반적 교육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2=24.90$, $p<.01$). 이는 석사과정 재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들이 학사과정은 기초교육, 대학원과정은 전문적인 전공교육으로 보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외 다른 일반적 특성과 실무자들의 교육목표와 전문가 교육수준에 대한 평가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표 1〉과 〈표 2〉는 교수와 실무자간에 학사과정의 교육목표와 전문가 교육수준에 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수집단은 실무자집단보다 학사과정의 교육목표를 일반전문가 양성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며($X^2=14.19, p<.01$), 전문가 교육수준을 일반적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X^2=63.41, p<.001$). 반면 실무자집단은 교육목표를 다양하게 생각하여 교수집단보다 고급전문가 양성과 연구자 기초교육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전문가 교육수준을 일반적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교육에도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간의 교육목표와 교육수준에 관한 이러한 차이는 교수집단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이 준거틀로 삼아온 미국사회사업교육의 교육목표처럼 학사과정의 교육목표를 기초교육에 근거한 일반전문가 양성으로 보는데 반해 실무자들은 일반전문가 양성이라 할지라도 기초교육과 전문적인 전공교육을 포함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표 1〉 교수와 실무자의 교육목표 평가

(단위: 명, %)

	일반전문가양성	고급전문가양성	교양교육	연구자기초교육	N
교수	69(86.3)	3(3.8)	8(10.0)	80	
실무자	228(65.3)	52(14.9)	4(1.1)	65(18.6)	349
					$X^2=14.19$ *** $p<.01$

〈표 2〉 교수와 실무자의 전문가교육수준 평가

(단위: 명, %)

	Generic	Specific	Generic+ Specific	기타	N
교수	59(73.8)	1(1.3)	20(25.0)	80	
실무자	92(26.8)	42(12.2)	205(59.8)	4(1.2)	343
					$X^2=63.41$ *** $p<.001$

2. 교과과정 및 교과목의 교육목표에 대한 적합성

소속하고 있는 학교의 사회복지 학사과정 교과과정이 교육목표를 성취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한 교수응답자는 11.3%였고, 적합한 편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0.0%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부적합한 편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5.0%, 매우 부적합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현행 학사과정 교과과정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복지학과의 개설과목 중 약 69%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목들로 나타나 있다⁶⁾. 그러나 시행령에 규정된 과목 중에는 개설비율이 매우 낮은 과목들이 있는데 이는 시행령이 사회복지교육의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해 교수응답자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들이 학사과정 교육목표 성취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된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개론 83.8%, 사회복지실습 81.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71.3%, 개별지도론 67.5%, 사회복지조사론 67.5%, 집단지도론 61.3%, 사회복지행정 57.5%, 지역사회조직론 55.0%, 사회복지정책 55.0%, 사회복지법규 50.0%, 사회복지보장론 43.8%, 사회문제 40.0%, 사회복지사업통합방법론 38.8%, 아동 및 가정복지 36.3%, 노인복지론 36.3%, 사회복지발달사 35.0%, 심신장애인복지론 28.8%, 자원봉사론 27.5%, 의료사회사업 20.0%, 부녀복지(여성복지) 16.3%, 교정복지론 15.0%, 산업복지론 15.0%, 지도감독론 10.0%, 정신위생 8.8%, 사회심리학 5.0%, 사회변동론 3.8%였다.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된 과목들은 주로 사회복지 기초과목, 사회복지실천방법론 관련과목,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관련 과목, 사회복지행정 및 프로그램 개발, 실습에 해당되는 과목들이며 사회복지 분야론 과목과 인접학문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대체로 매우 적합한 과목으로는 평가되지 못하였다.

적합한 편 이상으로 평가한 비율은 사회복지개론이 97.6%, 사회복지조사론 97.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 및 가정복지, 노인복지론과 사회복지정책이 각각 96.3%, 사회복지법규 95.0%, 지역사회조직,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습과 사회문제가 각각 93.8%, 개별지도론이 92.5%, 집단지도론과 심신장애인복지론 91.3%, 사회복지보장론이 88.8%, 의료사

6) 김연옥, "현행 사회복지학과 학사과정 교과과정 분석", 『한국대학 사회복지학과의 교과과정 개정과 개발방향』, 1997년 한국사회복지(사회사업)대학협의회 연찬회 자료집, 1997, p. 113.

회사업 86.3%, 사회복지발달사 85.0%, 부녀복지 83.8%, 자원봉사론 80.0%, 사회사업통합방법론 78.8%, 교정복지론 77.5%, 산업복지론 72.5%, 정신위생 61.3%, 사회심리학 52.5%, 지도감독론 50.0%, 사회변동론 37.6% 순이었다.

적합한 편으로 평가된 비율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과목들은 개설비율이 낮은 과목들과 일치되고 있다. 한편 3대 방법론과 통합적 방법론이 중복개설되고 있는 점과 아울러 내용상의 중복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교수응답자들이 이 과목들에 대해 적합한 편 이상으로 응답한 것과 사회심리학 같은 인접학문 영역의 교과목에 대해서조차 50%이상이 교육목표와 관련해 적합하다고 평가한 것은 교수집단의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미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대부분 학과 졸업생이 전공과 무관하게 진로가 결정되는 실정에서 사회복지학과는 예외적일 정도로 전공과 관련된 취업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교과목들의 실무수행에 도움되는 정도에 대해 실천현장의 실무자들로 하여금 평가케하는 것은 교과목의 교육목표에 대한 적합성을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학사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352명의 실무자들이 응답한 주요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별 실무자 수강인원과 각 교과목이 실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움이 된 편 이상으로 평가한 비율을 보면 실습이 80.3%로 가장 높았고 개별지도론 76.4%, 사회복지개론 66.2%, 집단지도론 56.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이 55.8%, 분야론 과목들 55.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 55.3%,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는 51.1%, 사회사업통합방법론 47.7%, 사회문제론 47.6%, 지역사회조직론 45.9%, 사회복지조사론 45.8%, 사회복지법제론 43.4%, 사회복지행정 43.2%, 사회복지정책 41.5%, 사회보장론 40.2%, 사회계획론 39.2%, 사회복지발달사 25.8% 였다.

사회복지 기초과목, 사회복지실천방법론 관련과목, 실습과목, 사회복지분야론 과목,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관련과목이 실무수행에 도움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교과목들이 도움되었다고 평가된 비율이 50% 미만인 점을 볼 때 현행 교과과정의 교과목들이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조사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실무자들이 대부분 직접적 실천분야의 일선실무자라는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3. 교과과정의 구성에 대한 평가

1) 교육목표의 반영

현행 학사과정의 교과과정에 대해 교수응답자 중 55.0%는 교육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학사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352명의 실무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보면 23.9%만이 교육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동의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교육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대학교육이 지나치게 실용성을 강조한 교육에 치중하다 보면 일종의 기능인을 양성하는 곳으로 전락하리라는 우려가 있으나 응용사회과학으로서 실천학문인 사회복지학은 다른 학과보다 교과과정이 실용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교차분석을 했을 때 교수집단은 실무자집단보다 현행 교과과정이 학사과정의 교육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X^2=31.13, p<.001$).

〈표 3〉 교수응답자와 실무자응답자의 교육목표 반영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교육 목표 반영			N	X ²	P
	그런편	보통	그렇지않은편			
교수	44(55.7)	26(32.9)	9(11.4)	79	31.13 ***	.0000
실무자	84(24.6)	156(45.6)	102(29.8)	342		

*** p<.001

2) 교과목 영역의 균형

교수응답자의 63.8%가 교과과정이 이론과목에 치중하고 있다고 응답해서 현행 교과과정이 실천학문이라는 사회복지학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론과목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무자응답자들은 81.5%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가 교과과정이 이론과목에 치중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물론 이론이 현상을 바르게 기술하고 설명하며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중요하고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무란 단순한 기능 혹은 기술이라 할 수 있으나 실천학문이라는 사회복지학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현행 교과과정이 지나치게 이론과목에 치중

한다는 평가를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 모두 하고 있다.

교차분석을 시킨 결과 실무자집단은 교수집단보다 교과과정이 이론과목에 치중되어 있다고 보는 경향이 훨씬 강했다($X^2=16.12, p<.001$).

〈표 4〉 교수응답자와 실무자응답자의 이론과목 치중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이론 과목 치중			N	X ²	P
	그런편	보통	그렇지않은편			
교수	51(64.6)	18(22.8)	10(12.7)	79	16.12 ***	.0003
실무자	287(83.9)	40(11.7)	15(4.4)	342		

*** p<.001

한편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시수면에서 교과영역간의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데는 교수응답자의 37.5%만이 동의했다. 또한 교과과정이 사회복지실천방법론에 치중되어 있다는데는 2.8%만, 분야론 과목에 치중되어 있다는데는 25.0%만,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관련 과목에 치중되어 있다는데는 13.8%만이 동의하고 있어 교과과정이 특정 영역 과목에 편중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실무자응답자 중에는 42.0%가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시수면에서 교과영역간의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데 동의했다. 교과과정이 사회복지실천방법론에 치중되어 있다는데는 19.0%가, 분야론 과목에 치중되어 있다는데는 28.1%가,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관련 과목에 치중되어 있다는데는 13.6%만이 동의하고 있어 교수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실무자응답자도 교과과정이 특정 영역 과목에 편중되게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였다. 이는 교과영역별 균형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앞장의 교과과정 현황분석 결과와 상치되는 평가이다.

실무자집단은 교수집단보다 교과영역간의 균형성이 결여된 것으로 더 평가하였다($X^2=8.70, p<.05$). 그러나 교과과정이 특정 영역과목에 편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교수응답자와 실무자응답자의 교과영역간의 균형성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교과 영역간 균형성 결여			N	X ²	P
	그런편	보통	그렇지않은편			
교 수	30(38.5)	27(34.6)	21(26.9)	78	8.70	.013
실무자	148(44.0)	143(42.6)	45(13.4)	336		

* p<.05

〈표 6〉 교수응답자와 실무자응답자의 실천방법론과목 치중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실천 방법론 과목에 치중			N	X ²	P
	그런편	보통	그렇지않은편			
교 수	23(29.5)	30(38.5)	25(32.1)	78	3.88	.144
실무자	67(19.6)	159(46.5)	116(33.9)	342		

〈표 7〉 교수응답자와 실무자응답자의 분야론과목 치중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분야론 과목에 치중			N	X ²	P
	그런편	보통	그렇지않은편			
교 수	20(26.3)	35(46.1)	21(27.6)	76	.29	.864
실무자	99(29.3)	152(45.0)	87(25.7)	338		

〈표 8〉 교수응답자와 실무자응답자의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 과목 치중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제도 및 정책과목에 치중			N	X ²	P
	그런편	보통	그렇지않은편			
교수	11(13.9)	36(45.6)	32(40.5)	79	.10	.952
실무자	48(14.2)	148(43.7)	143(42.2)	339		

3) 교과목 영역간의 연계성

교과과정 구성에 있어서 연계성은 매우 중요한데 교과목을 개설하는데 있어 먼저 이수할 과목과 나중에 이수할 과목의 순서가 바뀌면 학습효과가 떨어지게 되며 또 교과과정의 단절로 인한 계속성이 결핍되는 문제가 야기되게 된다. 현행 교과과정의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복지기초과목은 가장 먼저 개설되며 사회복지실천 방법론은 실습보다 앞서서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은 실습과 거의 동시에 개설되고 있다. 실천방법론과 사회복지분야론은 동시에 개설되거나 분야론이 나중에 개설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은 분야론보다 늦게 개설되어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 사회복지의 역사 및 사상은 사회복지제도와 정책보다 앞서서 개설되고 있고, 사회복지조사와 통계는 실습에 앞서서 주로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 및 프로그램 개발은 개설시기 분산도가 커 실습과 무관한 경향을 보여준다.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는 주로 4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 실습과 무관하다. 사회복지 분야론과 실습은 동시 또는 실습이 늦게 개설되고 있다.

교수응답자들은 현행 교과과정이 과목간의 연계성을 배려했다에 40.0%가 동의하였고 실무자응답자들은 이에 28.1%만 동의하였다. 현행 교과과정 분석결과에 비추어보면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실습, 사회복지행정 및 프로그램개발-실습, 사회복지윤리와 가치-실습간의 연계성이 없거나 약한 실정이다. 이는 실습현장이 직접적 실천 현장에 국한되어 있지도 않고 국한되어서도 안되므로 영역간의 연계성이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윤리와 가치의 적용은 교육과정에서 체험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실습과목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간에 교과목 영역간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9〉 교수응답자와 실무자응답자의 과목영역간 연계성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과목 영역간 연계성			N	X ²	P
	그런편	보통	그렇지않은편			
교수	32(41.0)	29(37.2)	17(21.8)	78	5.01	.882
실무자	99(28.8)	139(40.4)	106(30.8)	344		

4) 한국적 현실의 반영

교수응답자들은 교과과정이 한국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데 43.8%가 보통이상으로 평가하였으나 실무자응답자들은 불과 4.0%만이 교과과정이 한국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한국 현실을 강의하는 대표적인 교과영역인 분야론과목이 교과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21.4%)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교과과정이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실무자집단의 평가가 압도적인 점은 교육내용에 있어서 토착화가 미진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무자응답자는 교수응답자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현행 교과과정이 교육목표와 괴리되어 있고 현장성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교차분석을 시킨 결과를 보면 실무자집단은 교수집단보다 훨씬 더 교과과정이 한국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X^2=34.81, p<.001$).

〈표 10〉 교수응답자와 실무자응답자의 한국적 현실반영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한국적 현실 반영			N	X ²	P
	그런편	보통	그렇지않은편			
교수	9(11.4)	26(32.9)	44(55.7)	79	34.81	***.0000
실무자	14(4.1)	36(10.6)	290(85.3)	340		

***p<.001

5) 전문직의 정체성 반영

교수응답자들은 교과과정이 전문직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에 30.0%만이 동의하였고 실무자응답자들은 이에 20.5%만이 동의하였다. 사회복지교육 현장과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해 일관되게 전문직으로 전제하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 모두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현행 교과과정이 전문직의 정체성을 반영하도록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말한다. 두 집단간의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1〉 교수응답자와 실무자응답자의 전문직의 정체성 반영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전문직의 정체성 반영			N	X ²	P
	그런편	보통	그렇지않은편			
교수	24(30.4)	26(32.9)	29(36.7)	79	5.01	.082
실무자	72(21.4)	96(28.6)	168(50.0)	336		

6) 실천방법론 관련 교과목의 세분화와 중복성

교수응답자 중 51.3%가 실천방법론 과목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평가했고 50%가 실천방법론 과목들이 내용면에서 중복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는 1950년대 미국식의 전통적인 3대 방법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사업통합방법론이 개설되고 있는 점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보인다.

그러나 교수집단의 평가결과와 달리 실무자응답자 중 24.7%만이 실천방법론 과목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평가했고 45.2%는 실천방법론 과목들이 내용면에서 중복되어 있다에 동의하였다. 실천방법론 관련과목의 지나친 세분화와 내용면의 중복성에 대해서 실무자응답자는 교수응답자보다 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교차분석시킨 결과를 보면 교수집단이 실무자집단보다 실천방법론 과목들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했고($X^2=21.22, p<.001$), 내용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2〉 교수응답자와 실무자응답자의 실천방법론의 세분화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실천방법론의 지나친 세분화			N	X ²	P
	그런편	보통	그렇지않은편			
교수	41(51.9)	17(21.5)	21(26.6)	79	21.22 ***	.0000
실무자	87(25.5)	104(30.5)	150(44.0)	341		

*** p<.001

〈표 13〉 교수응답자와 실무자응답자의 실천방법론의 내용중복에 대한 평가

(단위: 명, %)

	실천방법론 과목의 내용중복			N	X ²	P
	그런편	보통	그렇지않은편			
교수	40(51.3)	17(21.8)	21(26.9)	78	2.98	.226
실무자	159(47.3)	105(31.3)	72(21.4)	336		

7) 교과과정 구성의 총평가

교수응답자들의 교과과정 평가 총점수의 평균은 32점(SD=5.3)(점수가능 범위 11-55)이었으며 점수범위는 23점부터 49점까지 였다. 실무자응답자의 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평가의 총점수 평균은 30.5(SD=3.8)였으며 범위는 18점부터 41점까지 였다. 교과과정의 교육목표 반영정도, 영역간의 균형성, 연계성, 현장의 현실 반영정도, 전문성, 세분화와 중복성 등에 기초한 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의 총평가는 보통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수응답자들이 실무자응답자보다 긍정적이었다($t=-2.84, p<.05$). 실천방법론 관련과목의 세분화와 중복성 측면을 제외하고는 현행 교과과정의 구성에 대해 실무자집단이 교수집단보다 훨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4. 교과과정의 개선에 대한 견해

교과과정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의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공필수로 수강해야 할 영역 세가지에 대해 교수응답자의 76.3%가 사회복지기초과목을, 75%가 사회복지실천방법론과목을, 42.5%가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관련과목을, 41.3%는 실습을 꼽고 있었다. 학사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실무자응답자는 68.5%가 사회복지실천방법론을, 54.0%가 사회복지기초과목을, 38.6%가 실습을, 27.6%가 사회복지분야론 과목을, 26.1%가 사회복지행정 및 프로그램 개발을 꼽았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영역에 있어서 사회복지기초과목과 실천방법론 관련 과목, 실습에 관해서는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간에 공통된 의견이나 교수응답자들이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관련과목을 지적한 반면 실무자응답자는 분야론, 행정 및 프로그램개발과 같은 현장의 실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영역을 꼽고 있다. 이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 실무자의 특성과 관련된 견해로 볼 수 있다.

한편 총학점을 100%로 환산했을 때 교과목영역별로 교수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학점 비율은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앞장의 교과영역별 교과목 개설현황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개설해야 하는 영역은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실습, 대학별 특성화과목이었고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개설해야 하는 영역은 교양기초과목과 분야론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교수응답자가 평가한 적정학점 비율

교과목영역	단위: 백분율(%)						평균
	불포함	1-5%	6-10%	11-15%	16-20%	21%이상	
교양기초	75	30.0	46.3	5.0	11.3		8.8
사회복지	25	6.3	70.0	12.5	8.8		10.8
기초과목							
실천방법론	25	2.5	36.3	31.3	25.0	2.5	14.0

교과목영역	불포함	1-5%	6-10%	11-15%	16-20%	21%이상	평균
제도와 정치	6.3	15.0	62.5	12.5	3.8		9.5
조사와 통계	3.8	37.5	53.8	3.8	1.3		7.8
사회복지분야론	3.8	10.0	48.8	16.3	18.8	2.5	12.8
윤리와 가치	8.8	67.5	20.0	3.8			5.6
역사 및 사상	12.5	62.5	22.5	1.3	1.3		5.6
행정 프로그램	6.3	31.3	56.3	5.0	1.3		8.0
사회복지 실습	2.5	8.8	65.0	18.8	5.0		10.6
특성화 과목	32.5	38.8	27.5	1.3			4.5

학사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352명의 실무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표 15>에서 보면 개설현황에 비해 크게 확대개설해야 하는 영역은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사회복지행정 및 프로그램개발, 실습, 대학별 특성화과목이었고 크게 축소개설해야 하는 영역은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분야론 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개설되지 않고 있는 교과목영역인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대학특성을 반영한 교과목에 대해 적정 학점으로 제시한 비율이 주목할만하다. 사회복지전문직의 자질은 전문지식과 기술습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복지윤리와 가치적용을 교육과정에서 습득함으로써 양성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교과과정은 개설교과목의 획일성이 두드러지고 대학간의 차별성이 교과목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데 지역적 특성, 설립재단의 특성 등을 반영한 교과목의 개설이 요구되어졌다.

<표 15> 실무자 응답자가 평가한 적정학점 비율

단위:백분율(%)

교과목영역	불포함	1-5%	6-10%	11-15%	16-20%	21%이상	평균
교양기초	2.8	42.3	39.2	3.7	5.4	0.9	8.1

교과목영역	불포함	1-5%	6-10%	11-15%	16-20%	21%이상	평균
사회복지	1.7	19.6	50.3	7.7	11.9	3.1	11.1
기초과목							
실천방법론	1.7	9.9	44.3	15.6	17.0	5.7	13.0
제도와 정치	4.3	34.9	42.9	7.7	3.4	1.1	8.4
조사와 통계	10.2	43.8	33.5	3.1	3.4	0.3	6.9
사회복지분야론	2.6	17.6	44.3	14.5	13.1	2.3	11.1
윤리와 가치	8.5	44.9	32.7	4.5	2.8	0.9	7.1
역사 및 사상	13.9	62.2	15.9	2.0	0.3	0.0	4.9
행정 프로그램	4.5	23.6	40.6	13.6	8.8	3.1	10.5
사회복지 실습	2.6	9.9	34.1	15.6	21.6	10.5	14.9
특성화 과목	29.8	42.3	18.5	2.3	1.1	0.3	4.6

교과과정 영역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교수응답자의 91.3%가 사회복지기초과목이 사회복지실천방법론에 선행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78.8%가 사회복지기초과목이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관련과목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90.0%가 사회복지실천방법론과목이 실습에 선행해야 한다고 했으나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관련과목들이 실습에 선행해야 한다에는 48.8%만이 동의했고 72.5%가 사회복지윤리 및 가치가 실습과목에 선행해야 한다에 동의하였으며 사회복지 행정 및 프로그램 개발과목이 실습에 선행해야 한다에는 55%가 동의했고, 51.3%가 사회복지조사와 통계과목이 실습에 선행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복지분야론 과목이 실습에 선행되어야 한다에는 50%가 동의했다. 사회복지실천방법론 과목들이 사회복지분야론 과목에 선행해야 한다에 63.8%가 동의한 반면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관련과목이 사회복지분야론 과목에 선행해야 한다에는 46.3%만 동의했다. 사회복지역사 및 사상이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관련과목에 선행해야 하는 것에는 51.3%가 동의하였다.

교과과정 영역간의 연계성에 대해 학사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실무자 응답자 중

75.0%가 사회복지기초과목이 사회복지실천방법론에 선행해야 한다고 동의하였고 61.4%가 사회복지기초과목이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관련과목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74.1%가 사회복지실천방법론과목들이 실습에 선행해야 한다고 했으나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관련과목들이 실습에 선행해야 한다에는 43.8%만이 동의했고 62.5%가 사회복지윤리 및 가치가 실습과목에 선행해야 한다에 동의하였으며 사회복지 행정 및 프로그램 개발과목이 실습에 선행해야 한다에는 58.0%가 동의했고, 48.0%가 사회복지조사와 통계과목이 실습에 선행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복지분야론 과목이 실습에 선행되어야 한다에는 60.2%가 동의했다. 사회복지실천방법론 과목들이 사회복지분야론 과목에 선행해야 한다에 50.9%가 동의한 반면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관련과목이 사회복지분야론 과목에 선행해야 한다에는 35.5%만 동의했다. 사회복지역사 및 사상이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관련과목에 선행해야 한다는데는 43.2%가 동의하였다.

교수집단은 사회복지기초과목-사회복지실천방법론, 사회복지기초과목-사회복지제도와 정책, 사회복지실천방법론-실습, 사회복지윤리와 가치-실습, 사회복지실천방법론-사회복지분야론의 연계성에 60%이상이 동의했고, 실무자집단은 60% 이상이 교수집단과 동일한 교과영역간 연계성에다 사회복지분야론-실습의 연계성에 동의하였다. 현행 교과과정 분석결과를 보면 이러한 연계성이 있으나 사회복지윤리와 가치만이 실습과 무관하게 개설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윤리와 가치 과목의 개설시기는 실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응답자가 꼽은 앞으로 확대될 두가지 주요 사회복지실천 영역은 지역복지가 46.3%, 학교사회사업 37.5%, 공공복지 30.0%,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28.8%, 산업복지 21.3%, 종교사회복지 11.3%, 교정복지 8.8%, 의료사회사업 6.3%, 군인복지 1.3%, 기타 7.5%였다. 실무자 응답자가 확대되리라 기대하는 실천영역은 지역복지와 학교사회사업이 각각 41.8%, 공공복지 39.0%,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27.0%, 의료사회사업 22.6%, 산업복지 10.1%, 종교사회복지 4.2%, 교정복지 4.0%, 군인복지 0.4%, 기타 1.9%로 교수집단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확대되리라 기대되는 실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은 현행 교과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를 반영하려면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실무수행과 관련해 교수응답자는 학사과정 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할 두 측면으로 61.3%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58.8%가 실천개입기술을, 32.5%가 가치와 윤리를, 20%가 사회조사 및 통계분석을, 16.3%가 이론적 지식을 꼽았다. 실무자응답자는 강화되어야 할

두 측면으로 63.5%가 실천개입기술을, 62.0%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28.5%가 가치와 윤리를, 14.1%가 사회조사 및 통계분석을, 12.9%가 이론적 지식을 꼽았다.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 모두 프로그램 관련 능력개발과 실천기술측면이 사회복지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하는 주요소로 보았다.

IV. 논의 및 제언

앞의 연구결과에서 사회복지 학사과정의 교육목표를 '일반전문가 양성'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대학교육에서 이와같은 '일반전문가 양성'이란 교육목표는 새로운 교과과정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에 따라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연구자 기초교육'이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학사과정의 전문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 간의 견해차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체로 전문교육수준을 '일반(general)수준'으로 보는 비율이 높으나 실무집단에게는 '전문(specific)수준'으로의 수준향상을 위한 요구도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실무자가 학사과정을 졸업한 사회복지사인 점을 감안하면 학사과정에서 전문교육수준 향상의 욕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교육의 수준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교육수준에 관한 목표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에 규정된 교과목의 교육목표 적합성 평가에서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를 기준으로 50% 이상의 평가를 받은 과목은 사회복지개론, 사회사업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개별지도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조직론, 사회복지정책 등 이었다(다만, 개별지도론, 집단지도론 등 실천방법론과목의 통합은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 이 과목들은 적합한 편 이상이라는 기준에서는 90%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아동과 가족복지, 노인복지, 심신장애인복지, 사회보장론, 의료사회사업 등 분야론 과목들과 사회복지발달사 등의 과목도 80% 이상의 적합성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과목들은 새로운 교과과정 구성에서도 핵심적인 교과목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하고 있는 대학의 교과과정의 구성이 교육목표를 성취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해

여 교수집단은 55.0%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실무자집단은 23.9%만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교과과정 구성에서 교육목표의 반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과정 구성의 기본틀로는 교과목영역의 균형성을 기초로 하여, 교과목의 연계성, 중복성, 토착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수용성(대학 특성화 포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과과정의 교과목 영역간 균형성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교수집단은 전체적으로 교과 영역간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항에 37.5%만이 동의하고 특정 영역과목에 대하여도 편중되어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반면에 실무자집단은 42.0%가 교과목 영역간의 균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여 교수집단 보다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적정학점비율은 현행 교과과정에 비하여 분야론이 약화되고, 실습영역, 행정 및 프로그램개발 등 현장과 실천영역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의견은 여러가지 분야론이 교과과정에서 백화점식으로 진열되어 실무의 필요성과 관련없이 나열적으로 교수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전문화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현행 교과과정의 연계성⁷⁾은 사회복지기초과목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우선하여 개설되며, 실천방법론은 실습보다 우선하여 개설되며, 분야론은 실천방법론과 같거나 나중에 개설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은 분야론 보다는 늦게 개설되며, 사회복지역사와 사상은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보다 우선하여 개설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복지조사와 통계는 실습보다 선행하여 개설되는 경향이며, 사회복지행정은 실습의 개설시기와 무관하다. 한편 교과목영역간 연계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사회복지기초과목-사회복지실천방법론, 사회복지기초과목-사회복지제도와 정책, 사회복지실천방법론-실습, 사회복지윤리와 가치-실습의 연계성이 6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사회복지행정 및 프로그램개발-실습, 사회복지실천방법론-분야론은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과목영역간의 연계성은 새로운 교과과정모형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천방법론 과목의 중복성에 있어 교수집단은 50.0%, 실무자집단은 45.2%가 중복성을 인정하고 있다. 실천방법론의 지나친 세분화에 대하여 교수집단은 51.3%, 실무자집단은 24.7%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지도론, 집단지도론, 통합방법론 등으로 분리된 실천방법론의 중복성을 극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7) 김연옥, "현행 사회복지학과 학사과정 교과과정 분석", 『한국대학 사회복지학과의 교과과정 개정과 개발방향』 1997년 한국사회복지(사회사업)대학협의회 연찬회 자료집, 1997, p. 121.

에 대하여 실천방법론1, 실천방법론2 등으로 과목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도 교과목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과목 명칭으로 정책분석방법, 복지국가, 사회보장, 사회복지제도 등에 관한 내용이 대학에 따라 중복되어 교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과과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교과목 명칭을 사회복지정책분석(또는 사회복지정책과 분석)이라고 하고, 복지국가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제도론 등과 같은 광의의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군의 타과목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의 한국적 현실 반영도에 있어서 55.0%, 실무자집단은 82.4%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는 교과목의 수를 증설하고 교육내용을 확충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확대될 사회복지 실천영역에 대하여 교수집단은 지역복지, 학교사회사업, 공공복지,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산업복지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고, 실무자집단은 지역복지, 학교사회사업, 공공복지,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의료사회사업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이들 영역은 모두 최소한 2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앞으로 실무수행과 관련하여 강화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는 교수집단과 실무자집단은 모두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실천개입기술, 가치와 윤리, 사회조사와 통계의 동일한 순서로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그외 교과과정의 개선과 관련해 연구결과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각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는 전공필수과목이 대학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되고 있어, 전문교육의 보편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에 대한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전공필수과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공필수와 선택과목의 선택은 각 대학의 판단에 의하여 시행하되, 사회복지(사회사업)대학협의회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모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공필수과목으로는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사업실천방법, 사회복지정책분석, 실습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년별 교과목 배치는 과목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교과목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년별 교과목의 배치는 영역간, 과목간 연계성을 고려한다. 또한 주요 교과목 영역에 있어서는 선수과목 이수를 규정함이 필요하다. 특히 실습의 선수과목으로는 사회사업실천방법, 사회사업실천방법의 선수과목으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의 선수과목으로는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를 권장함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